

세계 1위 토탈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 자신 있다!

XCE 김주혁 사장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휴대폰에 자사의 플랫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시장을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남미, 동남아국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XCE 김주혁 사장의 목표는 설립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난 벤처업체로 보기에 너무 거창하다. 세계 무선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하지만 김 사장은 자신있게 설명한다. “세계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무선인터넷이 본격화된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나머지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000만대 이상의 휴대폰에 자사의 플랫폼을 설치해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XCE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실제로 세계에서 XCE와 경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일본의 아프릭스사 정도라고 한다. 아프릭스는 NTT와 KDDI, J폰 등 일본내 이동통신 3개사에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내 무선인터넷 플랫폼 NO.1 회사다.

이외에도 노키아, 모토로라, 에릭슨 등 단말기 업체들이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이는 자사의 단말기를 위한 것으로 이들은 아직 멀티미디어 무선인터넷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XCE가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경험과 노하우가 최대 강점

XCE는 지난 1999년 당시 SK텔레콤에서 사내벤처제도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사내벤처 1호이다. 때문에 현재 SK텔레콤

XCE는 지난 2000년 3월 SK텔레콤의 사내벤처 1호로 출범한 자바 기반의 무선인터넷 솔루션 전문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이스라엘 펠레폰사에 자바 기반 무선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에는 SK텔레콤과 함께 대만 APBW사에 자바 플랫폼 및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XCE 김주혁(39) 사장을 만났다.

취재 신중훈 기자

이 서비스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의 단말기에는 XCE의 자바 플랫폼 SK-VM이 탑재돼 있다.

SK텔레콤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사일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가운데 하나다. 이 회사의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단말기는 삼성전자 11개 모델과 모토로라 2개 모델을 비롯해 텔슨전자, 한화, 터보, 팬택&큐리텔 등 총 17개 모델 등 1,000만대에 이른다.

김 사장은 "3년전 누구도 자바 플랫폼이 무선기기에 실제로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XCE는 자바가 무선인터넷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했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한발 앞서 시작한 것이 오늘의 XCE를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국내는 기본, 해외시장은 '옵션'

XCE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물론 SK텔레콤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지만 XCE 스스로 갖춘 기술력이 없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다.

지난해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2위 이동통신사인 펠레폰사 및 대만의 이동통신업체인 APBW에 SK-VM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양사에 공급된 SK-VM은 J2ME(Java 2 Micro Edition) 스펙에 따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무선인터넷 플랫폼이다. 또 XCE는 이와 별도로 게임빌, 모게임, 매직하우스, 모바일네이처 등 국내 자바 기반의 CP들과 공동으로 40여종의 자바 게임도 함께 공급하기도 했다.

올해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차이나유니콤 및 차이나모바일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나 유니콤은 지난 1월 켈컴의 브루(Brew) 기반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올 상반기중 자바 기반의 서비스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

나모바일의 경우는 중국내 단말기업체를 통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SK텔레콤 외에도 삼성전자, 포스테이터, 일본의 HI, 나조미(Nazomi) 등의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올해는 해외에서만 약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탈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 목표

XCE는 올해 해외시장 공략 외에도 사업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 구동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 및 킬러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 사장이 말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란 현재 무선인터넷에서 주목받고 있는 MMS, 네이트 드라이브 등 LBS, 3D 엔진, 인스턴트 메신저(IM), 무선P2P 등을 말한다.

또 이 회사는 최근 휴대폰으로 PC나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원격제어 솔루션을 개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다. 이 솔루션은 P2P(Peer to Peer) 기술을 활용, 서버를 거칠 필요없이 직접 휴대폰과 휴대폰을 연결해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홈오트메이션, 원격검침, 원격건강검진, 교통정보, 파일공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다변화를 통해 김 사장은 XCE를 무선인터넷 분야에 있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갖춘 업체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이미 전세계 시장의 70% 이상이 J2ME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플랫폼과 함께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업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